

『世界國盡』의 외국지명 표기에 대한 고찰*

변상숙**
yewonss@empal.com

이경규***
lk5120@deu.ac.kr

<目次>

- | | |
|---------------------------------|-----------------------------------|
| 1. 들어가며 | |
| 2. 선행연구의 검토 | 3.2 『世界國盡』에서 조어진 한자 표기 |
| 3. 『世界國盡』의 외국지명 표기 실태 | 3.3 『世界國盡』에서 사용된 한자 표기의
이후 사용례 |
| 3.1 『世界國盡』이전에 사용례가 보이는
한자 표기 | 4. 나오며 |

主題語: 세계국진(The world gukjin), 외국지명(Foreign nomination), 한자표기(Chinese Character Notation), 명치(Meiji), 조어(a made word)

1. 들어가며

본 연구에서는 明治 신정부가 근대 국가로의 이행을 위해 서양문명을 모델로 한 제도 개혁 중 1872년 공포된 학제(學制)¹⁾에 따라 소학교 하급(4~1급) 지리 교과서로서 채택된 『世界國盡』을 통하여 외국지명 표기 실태를 밝히고자 한다.

현재 외국지명 표기는 일부 관용적인 지명 표기를 제외하면 가타카나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明治期의 지명 표기 방식에는 한자, 히라가나, 가타카나가 모두

* 이 논문은 2014학년도 동의대학교 교내연구비에 의해 연구되었음(2014AA431)

** 동의대학교 인문대학 일어일문학과 강사

*** 동의대학교 인문대학 일어일문학과 교수, 교신저자

1) 학제는 1872년에 실시된 일본최초의 근대적 학교제도에 관한 교육법령이다. 프랑스 학제를 모방한 학구제(學區制) 형식을 취하고 있다. 학제는 신분이나 남녀 차별 없이 동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와 의미가 제도화되었으며, 일상생활에 필요한 「읽기, 쓰기, 주산(読み、書き、そろばん)」이외에도 지리교육에 할애된 시간이 많았다. 지리 과목은 문명개화에 필요한 실학적 성격이 강해 일본의 근대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으며, 그 가운데 지리 교과서로서 『世界國盡』의 역할 또한 컸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소학교의 지리 교육에 할애된 수업시수에 대해 야마모토 다쓰오(山本幸雄)(1958) 『地理教育史』의 것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사용되어 세계지명을 소개하는 데는 다양한 표기가 존재하였다. 이와 같이 明治期에는 표기 체계가 제대로 정립되지 못했으므로 동일 지명에도 다양한 표기가 나타난다.

- (1) 又地中海、西紅海ノ間一線路アリテ阿弗利加ト壤ヲ接ス、 (『新製地球萬國圖說』 p.18)
- (2) 亜細亞、歐羅巴、亜弗利加、三洲の間に在海峡あり、 (『輿地誌略』 p.262)
- (3) 「아프리카洲」の廣大は五大洲の第二番南北二千三百里、 (『世界國盡』 p.703)

상기 예문(1)-(3)은 아프리카에 대한 한자 표기로, 이들 가운데는 기존 표기를 그대로 계승하여 사용하거나, 또는 일본어 발음에 가까운 한자 표기를 시도하여 동일 지명에 대해서 한자를 다르게 나타내고 있다. 특히 일본에서는 江戸幕府 말기에 이르러 서양과의 직접적인 교류가 이뤄지면서 이전까지 중국식 표기에 의존하였던 외국지명에 대한 한자 표기를 일본어 음에 들어맞는 적합한 한자 사용과, 어렵고 복잡한 한자 보다는 획수가 적은 한자와 익숙한 한자를 이용하여 지명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때문에 외국지명의 한자 표기에는 중국식 표기와 일본식 표기가 혼재하여 1946년 외국지명과 인명에 대한 가나표기법이 제정되기까지 다양한 한자가 이용된 것이 확인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본 근대를 대표하는 福沢諭吉의 『世界國盡』에 나타나는 한자 표기 양상을 조사하여, 『世界國盡』이전 표기의 수용 실태와 福沢諭吉에서 조어진 한자 표기 양상을 조명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 『世界國盡』을 자료로 선택한 이유는 다른 문헌과 달리 비교적 많은 외국지명에 대해서 가나를 배제하고 한자로 소개하고 있어 막말과 明治 초기 한자 표기 양상을 효율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유용한 자료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福沢諭吉의 자료는 일본 근대사의 사상과 정치, 국민계몽, 교육에 이르기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당시의 지명 표기를 이해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서 일본 근대 지식인의 서구 지명 표기에 대한 수용태도와 근대기에 조어진 표기법의 활용방안, 나아가 이러한 표기들이 현대 사전에 등재된 표기법과 어떠한 상관관계를 지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하나의 단서를 제공할 것이다.

小學段階	下等								上等							
	8	7	6	5	4	3	2	1	8	7	6	5	4	3	2	1
級(半年進級)																
地理讀方				3	6											
地理學論講						6	6	4	6	6	4	2	2	2	2	2
週總授業時數	30	30	30	27	27	26	30	30	34	32	30	26	30	30	30	29

2. 선행연구의 검토

외국지명 표기 연구는 외래어라는 관점에서 출발하여 일본어에 나타나는 외국지명과 인명 표기 방법이 서양의 음절 구조와 다른 일본어에서는 어떻게 기능하는가에 대해서 다뤄진 연구가 대부분이다. 또한 일본의 국립국어연구소(1987)는 「外来語の研究」에서 외국지명과 인명을 포함한 외래어 표기에 있어서 1926년을 경계로 한자에서 가나 표기로의 이행 과정을 통시적인 관점에서 고찰한 연구 결과를 내놓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외국지명에 대한 한자 표기 연구는 그리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하였다. 지금까지 한자 표기 외국지명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일본어의 입장에서 외국지명의 수용 과정과 변화 과정을 밝힌 王敏東(1995)²⁾ 연구를 들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는 중국과 일본의 역사서, 지리서, 지도, 기행문, 문학작품, 교과서, 사전, 신문 등의 방대한 자료를 활용하여 외국지명 표기에 대한 체계적인 고찰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중국계 외국지명 표기가 일본에서 통용될 수 있었던 최대의 이유를 양언어의 음운체계에서 찾고 있다. 王敏東에서는 외국지명의 통시적인 견지에서 연구를 진행하였지만 지명 표기의 전체적인 양상에 대한 논의가 결여되어 있어 외국지명의 체계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西浦英之(1971)³⁾에서는 1860~1870년의 慶應新聞을 조사 자료로 하여 외국지명의 명칭과 표기 변화에 대해 근세 외교사와 세계지리서의 관점에서 논의하고 있다. 신문의 특성상 주재(主宰), 편집자, 번역자의 방침이나 교양 정도에 따라 개인적인 성향이 반영되어 표기되며, 한자보다 가타카나 표기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그리고 한자 표기에 있어서는 종래의 획수가 많은 한자가 정리되어 사용도가 높은 표기로의 이행이 나타나는 점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西浦英之에서는 특정 신문을 자료로 하여 10년간의 지명 표기의 변화 과정을 살피고 있으나, 사용 빈도수가 높은 국명과 일부 지명에만 한정해서 조사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당시의 지명에 대한 한자 표기의 전체적인 양상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山本彩加(2009)⁴⁾는 明治와 昭和의 신문을 이용하여 지역별, 연대별, 후리가나의 유무, 방선과 방점 유무로 분류하여 외국지명 표기 현상에 대해 고찰하고 있다. 1875년부터 1925년에

2) 王敏東(1995)「外国地名漢字表記通時的的研究」、大阪大学博士学位論文
3) 西浦英之(1971)「幕末・明治初期新聞にあらわれた外国地名呼称・表記について」『皇学館大学紀要』9、弘前大学
4) 山本彩加(2009)「近代日本語における外国地名の漢字表記-明治・大正期の新聞を資料として-」『千葉大学日本文化論叢』10、千葉大学文学部日本文化学会

간행된 4개 신문「横浜毎日新聞」, 「朝野新聞」, 「萬朝報」, 「東京朝日新聞」을 조사 대상으로 하여 통시적인 관점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山本采叻의 연구 결과는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지적되어 온 내용과 뚜렷하게 차별화되는 결과를 도출해 내지는 못했지만, 외국지명 표기 연구에 있어서 1875년부터 1925년의 한자 표기가 안정기에서 쇠퇴기로 접어드는 시기의 전체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근대 일본어에 존재하는 외국지명의 한자 표기가 주된 연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용례로 추출한 외국지명 표기가 모두 가타카나로만 제시되어 있어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러한 경우에는 지명에 있어서 어떤 한자가 이용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행연구에 관한 연구동향은 明治의 지명에 대한 한자 표기가 昭和에 이르러 가타카나 표기로 전화되는 과정을 신문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통시적으로 고찰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明治 초기를 기점으로 하여, 당시 소학교 지리 교과서로 채택된 『世界國盡』의 표기 실태를 파악하고 근대에 새롭게 등장한 한자 표기의 성격을 밝혀보고자 한다.

3. 『世界國盡』의 외국지명 표기 실태

『世界國盡』은 1869년의 초판본『頭書大全』世界國盡 전6권과, 1872년의 합본하여 만든 『素本』世界國盡 전3권, 1876년에 단행본으로 간행된 『真字素本』世界國盡이 있다. 초판본의 『頭書大全』世界國盡은 본문의 상단 부분 1/3 가량을 할애해서 문장 내용과 주기를 그림으로 보완하고 있는 것을 말하며, 『素本』世界國盡은 서문, 범례, 목록, 그림, 부록 일체를 제외하여 권수를 줄인 것이며, 이를 다시 단행본의 독본용으로 한 것이 『真字素本』世界國盡이다. 내용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없으며, 사용문자와 후리가나의 좌우 위치가 달라진 점, 일정한 길이로 한 단락을 끊어 읽을 수 있도록 쉼표를 찍고 있다는 점 등의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외국지명을 나타내는 한자에서 표기 변화가 일어난 것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에서 자료로 삼은 것은 초판본의 『頭書大全』世界國盡이며, 이하 『世界國盡』으로 칭하도록 한다.

『世界國盡』은 전6권으로 제1권에서는 발단과 아시아주, 제2권 아프리카, 제3권 유럽, 제4권 북아메리카, 제5권 남아메리카·대양주, 제6권 부록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1〉 『世界國盡』의 한자 표기 지명 분포⁵⁾

주 \ 분류	국가 도시	해양	섬	강·산	합 계
아시아주	33	5	1	1	40
아프리카주	30	3	3	1	37
유럽주	49	2	1	4	56
아메리카주	22	-	-	2	24
대양주	13	-	1	-	14
합 계	147	10	6	9	171

〈표 1〉의 분포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유럽주에서 많은 지명이 소개되고 있으며,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대양주의 순으로 나타난다. 또한 대부분의 지명이 국가와 도시명에 집중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世界國盡』에서 소개된 외국지명의 한자 표기는 한자를 읽는 방법에 있어서 새로운 시도가 나타난다. 즉 기존의 지명에 이용된 한자들이 대부분 음으로 읽고 표기된 것이라면, 『世界國盡』에서는 한자의 의미에 해당하는 훈을 이용하여 지명을 표기하는 방식이 제시되어 있다. 예를 들어 아라비아, 캘리포니아, 캐나다의 「荒火屋(Arabia)あらびや」, 「雁保留仁屋(California)かりほるにや」, 「金田(Canada)かなだ」에서 「荒」, 「火」, 「屋」, 「雁」, 「金」, 「田」의 한자를 훈으로 읽은 것을 말한다. 『世界國盡』에서 기존의 한자 표기를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새로운 한자의 음과 훈을 이용해서 지명을 표기하고자 한 것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

다음은 『世界國盡』범례의 일부분을 인용한 것이다.

地名人名等は西洋の横文字を読んで略その音に近き縦文字を当ることなれば古来翻譯者の思々に色々の文字を用ひ同じ土地にても二も三も其名あるに似たり又或は唐人の翻譯書を見て其訳字を真似したつもありこれは唐の文字の唐音を以て西洋の字音に当たるゆへ唐音に明るき學者達には分るべけれども我々共には少しも分からず故に此書中には努て日本人に分り易き文字を用るやうにせり實はいろは計り用ても済むべき筈なれども本字を記して脇へ仮名を附れば記憶するに便利な例へば南亜米利加の「ぺいりゆう」といふ処へ平柳と記しあれば勘平

5)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는 아메리카로 통합하였으며 대양주를 분리하였다.

の平^{へい}の字^じと楊柳^{やうりう}の柳^{りう}の字^じなりと憶^{むね}に記^{しる}しておぼへ易^{やす}し(りうとりゅうとの違^{ちが}などは固^{かた}より論^{ろん}ずるにたらず)弁^{べん}輕^{けい}の弁^{べん}の字^じは弁^{べん}慶^{けい}の弁^{べん}の字^じなり論^{ろん}頓^{どん}の論^{ろん}の字^じは論^{ろん}語^ごの論^{ろん}の字^じなり。

(『世界國盡』凡例)

중국어음에 기초한 기존의 지명 표기는 일본어 발음과 맞지 않으며, 동일 지명에 대한 일부의 표기 혼란이 존재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알기 쉽고, 익숙한 한자를 이용하여 세계지명을 소개하고자 한 저자의 새로운 실험정신을 읽어낼 수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실제 예문을 통해서 『世界國盡』에 나타난 지명 표기 가운데 『世界國盡』이전에 이미 존재했던 한자 표기 실태를 파악하고, 『世界國盡』에서 조어진 한자 표기 양상 규명과, 이후 일본어에 존재하는 한자 표기 지명을 사전을 중심으로 표기 특징을 파악하고자 한다.

3.1 『世界國盡』이전에 사용례가 보이는 한자 표기

『世界國盡』이전에 사용례가 보이는 지명 표기는 전체 171개 지명 가운데 25개의 지명⁶⁾으로 福沢諭吉가 범례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당시 번역서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던 지명군이 여기에 속한다. 주로 중국식 표기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일부 지명에서 이전부터 일본어음에 맞도록 고안된 표기도 존재한다.

3.1.1 중국식 표기

(4) 「太平洋」의西^{にし}の方^{かた}「亜細亞州」의東^{ひがし}なる我^{わが}「日本」을始^{はじめ}とし西^{にし}にかたへと乗^{のり}出しその国^{くに}々^々を尋^{たづ}るに「支那」は「亜細亞」の一大^{いちだい}国^{こく}人民^{じんみん}おほく土地^ち廣^{ひろ}くみなみに「印度」北^{きた}に「魯四亞」東^{ひがし}のかたは、(p.691)

(5) 「歐羅巴」土地^ちは「亜細亞」に連^つれどその堺^{さかい}目^めを尋^{たづ}れば東^{ひがし}の方に「宇良留山」山^{やま}より出^いづるがはすえり「裏海」に流^{なが}込み「甲賀巢山」の麓^{すもと}より「黒海」越^こえて、「地中海」阿非利加州」と相對^{あひたい}し、(p.715)

6) 지명의 한자를 음독한 것으로 해양명과 같이 의역한 지명은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예문(4)(5)에 제시한 아시아, 중국, 인도, 러시아, 유럽, 아프리카, 태평양, 카스피해, 흑해, 지중해의 경우에 「亜細亞/Asia」, 「支那/China」, 「印度/India」, 「魯西亞/Russia」, 「歐羅巴/Europe」, 「阿非利加/Africa」, 「太平洋/Pacific Ocean」, 「裏海Caspian Sea」, 「黒海/Black Sea」, 「地中海/Mediterranean Sea」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지명에 나타나는 한자는 기존 표기 방식으로 표기 유래도 상당히 오래된 것들이다. 특히 이 가운데 인도는 일찍이 중국의 역사서인 『史記』(BC148)와 『後漢書』(445년경)에서 그 표기가 확인되며 한자를 음으로 읽고 표기한 「印度」뿐만 아니라 한자를 훈으로 읽고 표기한 「天竺」의 사용이 확인된다. 중국을 일컫는 「支那」에 대한 표기의 경우도 인도의 불전에서 그 시작이 확인되는 만큼 역사가 깊다고 할 수 있다. 그 밖의 표기는 서양 세계가 중국에 본격적으로 소개되기 시작한 명·청 시대 이후로 서양 선교사 마테오리치의 『坤輿萬國全圖』(1602)를 비롯하여 다수의 세계 지도와 지리서가 소개되면서 지명에 대한 한자 표기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아시아 「亜細亞」와 유럽 「歐羅巴」에 대한 한자 표기에는 변화가 거의 나타나지 않으며, 원어의 의미를 반영하여 한자 표기된 태평양, 카스피해, 흑해, 지중해 등의 해양명에 있어서도 표기 변동이 없이 지속적으로 사용되었다. 이에 반해 러시아에 대해서는 「峩羅斯」의 표기도 확인되나, 『世界國盡』에서는 「魯西亞」의 한자 표기를 더 일반화된 표기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는 江戸시대부터 전전(戰前)까지 「魯西亞」표기가 주류였고, 1855년 江戸幕府와 러시아 제국 사이에서 처음으로 체결한 조약 「日本国魯西亞国通好条約」에서는 「魯西亞」로 기록하고 있다. 이 한자 표기에 대해 1877년 러시아 영사관측으로 부터 「魯は魯鈍(愚かなこと)を連想させる」라는 항의를 받은 당시의 일본 정부는 러시아 측 희망을 수용한 표기 「露西亞」로 변경했다. 그러나 「露西亞」의 「露」에 대한 한자에 대해서도 「日(=日本)が昇ると露(つゆ)は消える」라는 마이너스적인 이미지가 있다고 하여 불만을 토로하였으나, 1877년 이후 자료에서는 「魯西亞」 「露西亞」양 표기가 사용된 것이 확인된다.

아프리카 「阿非利加/Africa」의 표기에서도 일본어 「ア」발음에 해당하는 한자 「阿」 「亜」의 혼용이 보이며, 「フ」발음에 해당하는 한자에서도 「非」 「弗」의 혼용이 보이나 『世界國盡』에서는 중국식 발음에 기초한 「阿非利加」표기를 고정된 일반적인 표기로 보고 그대로 수용한 것을 알 수 있다. 즉 『世界國盡』에서 보이는 중국식 표기는 표기의 역사가 깊거나, 당시 보편적인 표기로서 기능하는 지명에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7) 변상숙(2014) 「明治期の外国地名表記研究『福沢諭吉』의 지리 관련 서적을 중심으로」 동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58

3.1.2 일본식 표기

(6) 「^{きる}猿^ち路^に仁^や屋[」]「^し獅^し子^り里[」]越^て「^い伊^た里^こ国^ほ細^そく^な長^がく、 (p.727)

(7) 「^{きた}北^あ米^め利^り加[」]を三^にして其^の一^分の土^地なれど、 (p.742)

『世界國盡』에서 소개된 외국지명 가운데 기존의 일본식 표기를 수용한 지명은 이탈리아와 아메리카 두 지명에서만 보인다. 먼저 예문(6)의 이탈리아 「伊太里/Italia」에 대해서는 원어 [ta]에 해당하는 부분의 한자 표기가 중국과 일본에서 다르게 나타나는데, 중국의 경우는 「大」, 일본의 경우는 「太」의 한자가 원어에 가깝게 발음되어 각기 다른 한자로 사용된 것이 확인된다. 중국의 이탈리아에 대한 한자는 「義大里」, 「意大里」, 「以太利」의 표기가 보이며, 일본의 자료에서는 「以太里」, 「以太利」 표기 사용이 보인다. 특히 福沢諭吉의 『西洋事情』에는 「伊多利」, 「伊太里」, 「伊太利」의 표기도 나타나지만, 모두 일본어 발음 「夕」에 가까운 한자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문(7)의 아메리카 「亜米利加/America」에 대해서는 『坤輿萬國全圖』에서 「亜墨利加」의 표기가 확인되나 「亞美利加」쪽도 보편적으로 사용되어 간 듯하다. 여기서도 두 번째 음인 [me]에 해당하는 한자에서 중국과 일본의 사용이 구분되는데, 당시 일본측 자료에서 다용되었던 「米」에 대한 표기는 원래 중국에서 사용되었으나⁸⁾ 오히려 중국 보다는 일본에서 그 사용이 많아짐에 따라 일본식 표기라는 주장이 다른 연구 논문에서 제기되기도 하였다. 엄밀히 말하자면 아메리카는 일본식 표기로 보기 어렵지만, 중국의 자료에서는 거의 사용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⁹⁾, 일본측 자료에서 「米」표기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일본식 표기에서 다루었다.

3.2 『世界國盡』에서 조어진 한자 표기

『世界國盡』에서 조어진 한자 표기는 전체 171개의 지명 가운데 137개의 지명으로, 이들 한자의 특징은 비교적 쉽고 간단하여, 익숙한 한자의 음과 훈을 조합하여 만든 것들이다. 주로 幕末과 明治 초기에 새롭게 소개된 국가에서 이러한 양상이 나타난다. 이하에서는 조어진 한자 지명 중 음으로 읽은 지명과 훈으로 읽은 지명으로 분류하여 한자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8) 鄭英淑(2000)「開化期 資料에 나타난 外國地名의 漢字表記 研究」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9) 王敏東 (1995)「外國地名漢字表記通時的研究」大阪大学博士学位論文

3.2.1 한자를 음으로 나타낸 지명

- (8) 地中海の北岸へのぞめる国の総名は「北阿非利加」の「馬留馬里伊」、 (p.710)
- (9) 「治部良留多留」の瀬戸過て西は、 (p.715)
- (10) 「須徳保留武」の港よりまぎれ路なき真東は帝国「魯西亜」の都なる「新都平土留保留府」
なり、 (p.735)
- (11) 北とみなみの二大州地里の続は「巴奈馬」なる地峡の亘、 (p.740)

상기 예문(8)~(11)의 바르바로이, 지브롤터, 스톡홀름, 상트페테르부르크, 파나마의 경우에 「馬留馬里伊 Barbaroi」, 「須徳保留武/Stockholm」, 「治部良留多留 Gibraltar」, 「新都平土留保留府/Saint Peterburg」, 「巴奈馬 Panama」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한자의 음을 이용해서 지명을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제시된 예문의 지명은 『世界國盡』에서만 독자적으로 보이는 표기로 기존의 외국지명 표기와는 상이한 형태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즉 다른 자료에서 표기 형태를 찾을 수 없는 바르바로이를 제외하고 지브롤터 「日巴拉爾太」, 스톡홀름 「土篤恒」, 상트페테르부르크 「聖彼得堡」 「聖彼得羅堡」, 파나마 「巴拿馬」¹⁰⁾ 등의 한자로 표기되는 것이 확인되었다.

『世界國盡』에서 한자의 음을 이용한 새로운 표기 체계로의 이행은 기존의 중국식 발음에 기초한 표기 방식에서 벗어나 일본어 발음에 알맞은 한자를 이용하는 것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상기 예문에서 제시한 지명은 일본어 발음과 한자의 대응이 일대일로 적용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일본어 「バ」와 「マ」에 해당하는 음에는 주로 한자 「馬」가 이용되며, 「ル」음에 대해서는 한자 「留」, 「ホ」음에 대해서는 한자 「保」의 사용이 예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칙이 『世界國盡』의 지명 전체로 확대해 보면 규칙적으로 지켜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¹¹⁾, 비교적 동일하게 발음되는 음에는 동일한 한자를 사용하고자 한 점을 확인할 수 있다.

3.2.2 일부 한자를 훈으로 나타낸 지명

- (12) 無知文盲の野民のみ南東は「金田」の地氣候次第に和らぎて、 (p.743)

10) 여기서 제시한 지명 표기는 50여 편의 작품을 토대로 한 遠藤好英의 「附錄 外来語の漢字表記一覽」에 수록된 것을 참조하였다.

11) 일본어 「ス」 발음을 지니는 지명에는 보편적으로 활용된 「須」 한자 이외에도 예외적으로 여섯 개의 「州」, 「西」, 「巢」, 「蘇」, 「斯」, 「壽」 한자 사용이 보이기도 한다.

- (13) 「^{わしんどん'}和新頓^{きた かた り}」より北^{にふ}の方^{よる}百里^{くじんこうおそ}へだてて、^{こくちう}「入世留久」人口^{かうえき}凡^{その}一^{ほんじゆ}百萬^{じゆ}国^{じゆ}中^{じゆ}一^{じゆ}の^{じゆ}交易^{じゆ}場^{じゆ}其^{じゆ}繁^{じゆ}昌^{じゆ}は
- 「^{いぎりす}英吉利」の^{ろんどんふ}「論頓府」にも^{ほうふつ}彷彿^{にし}たり西^{かいがん}に^{かりほる}まはりて^{きん}海岸^{きん}の^{きん}「雁保留仁屋」は^{きん}金の (p.752)
- (14) ^{らんみや}東南^{くにぐに}の^{ぼりびや}国^{ぼらがい}々^{うりやうがひ}は「保里備屋」「巴羅貝」「宇柳貝」「良富羅多」^こ越^こえて、 (p.762)

예문(12)의 캐나다 「金田/canada」는 지명 전체를 훈으로 표기한 것으로, 『世界國盡』에서 조어된 지명 가운데는 이외에도 아라비아, 오타와, 수에즈, 시리아, 타호강의 「荒火屋/Arabia」, 「小田羽/Ottawa」, 「末洲/Suez」, 「尻屋/Siria」, 「田楠/Tajo」의 지명에서 전체 한자에 대해 훈을 이용해 나타내고 있다. 171개의 지명 가운데 지명 전체를 훈으로 표기한 것은 모두 6개 지명이며, 예문(12)(13)에서와 같이 지명의 일부분의 한자를 훈으로 읽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된다. 예문(13)의 뉴욕 「入世留久/New York」과 캘리포니아 「雁保留仁屋/California」는 일본어 발음 하나하나에 한자의 음 또는 훈을 대입시켜 지명을 나타내고 있다. 뉴욕에서는 한자 「入」와 「世」를 훈으로 표기했으며, 캘리포니아에서는 「雁」와 「屋」을 훈으로 표기하고 있다. 예문(14)의 경우도 예문(13)의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는데, 파라과이 「巴羅貝/Paraguay」, 우루과이 「宇柳貝/Uruguay」에서도 일본어 발음 「カイ」에 해당하는 부분의 한자를 훈으로 표기하였다. 예문(12)~(14)의 지명에서 사용된 한자의 훈은 한자의 실질적인 의미나, 원어의 의미와는 전혀 상관이 없으며, 福沢諭吉가 편역한 『世界國盡』의 주요 대상이었던 아동과 부녀자들에게 익숙하고 쉬운 한자를 이용하여 세계 지명을 이해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작용하게 한 것이다. 특히 예문(14)의 조개를 의미하는 한자 사용에서처럼 『世界國盡』에는 재미있는 한자를 부분적으로 이용해서 지명을 소개한 경우가 많다. 일부 지명을 소개해 보면, 시실리 「獅子里/Sicily」에서는 일본어 발음 「シン」에 해당하는 부분에 동물명인 「獅子」를 그대로 지명에 사용하였다. 이 경우는 드물게 한자를 음으로 읽었지만, 갠지스 「雁寺州/Ganges」의 기러기를 나타내는 한자 「雁」, 사르디니아 「猿路仁/Sardinia」, 살바도르 「猿和土留/Salvador」의 원숭이를 나타내는 한자 「猿」, 코르시카 「虎留鹿/Corsica」의 사슴을 나타내는 한자 「鹿」에서, 한자의 훈을 이용하여, 실생활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한자가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밖에도 색과, 잎, 쟁반, 절, 들관, 수로, 새집, 卍¹²⁾ 등을 지칭하는 한자의 훈을 이용한 지명이 다수 존재한다.

12) 「赤」:아마풀코 「赤保留古/Acapulco(あかゝぼるこ)」, 「葉」:아마나 「葉和奈/Havana(はわな)」, 「寺」:마데이라 「麻寺島/Madeira(まであしま)」, 「原」:사하라 「佐原/Sahara(さはら)」, 「堀」:프리폴리 「戸里堀/Tripoli(とりぼり)」, 「巢」:카프카스 「甲賀巢/Caucasus」, 「骨」:캘커타 「輕骨田/Calcutta(かるこつた)」, 코펜하겐 「骨片波辺/Copenhagen(こつぺんはへん)」

3.3 『世界國盡』에서 사용된 한자 표기의 이후 사용례

전술한 바와 같이 일본어에서 외국지명 표기는 일부 관용적인 한자 표기를 제외하면 가타카나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사전에는 사전의 종류에 따라 약간의 표기 차이가 나타나기는 하나, 일정기간 고정적인 표기로서 기능했던 일부 지명에 대한 한자를 등재하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일본 국어사전 중의 하나인 『広辞苑』¹³⁾에 수록된 지명 표기를 대상으로 비교하고자 한다. 이 과정을 통해서 『世界國盡』에 쓰인 한자 표기의 특징이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며, 사전에 수록된 한자 표기와의 연관성을 규명해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표 2> 『世界國盡』표기와 사전 표기

주	『世界國盡』	『広辞苑』	『世界國盡』	『広辞苑』	『世界國盡』	『広辞苑』
아시아주	亞細亞	○	支那	中國	北京	○
	魯西亞	露西亞	志辺里屋	西比利亞	上海	○
	香港	○	印度	○	尾留滿	緬甸
	西藏	○	滿落花	滿刺加	新賀堀	新嘉坡
	西論	錫蘭	阿芙賀仁須丹	亞富汗斯坦	辺留社	波斯
	荒火屋	亜刺比亞	土留古	土耳其古	末州	蘇素
	尻屋	叙利厘	志辺里屋	西比利厘	喜阿久田	恰克因
	太平洋	○				
아프리카주	阿非利加	阿弗利加	衛士府都	埃及	阿多羅海	大西洋
유럽주	歐羅巴	○	甲賀巢	高架索	奧地利	奧太利
	普魯士	普魯西	蘇格蘭	○	阿爾蘭	愛蘭
	英倫	英蘭	論頓	倫敦	佛蘭西	○
	西班牙	○	白耳義	○	瑞西	○
	巴里斯	巴里	伊太利	○	希臘	○
	宇陰奈	維納	和蘭	和蘭, 阿蘭陀	噠國	丁扶
	日耳曼	○	瑞典	○	能留英	諾威
아메리카주	亜米利加	○	英吉利	○	喜別久	西藏
	金田	加奈陀	入世留久	紐育	女喜志古	墨西哥
	久場	玖馬	巴奈馬	○	武良尻	伯刺西爾
	葡萄牙	○	池鯉	智利	平柳	秘露
대양주	爪哇	爪哇, 閩婆	呂宋	○	奧太利亞	濠太刺利
	新地位蘭土	新西蘭				

13) 新村出(1969)『広辞苑』岩波書店

<표 2>는 대륙별로 분류한 지명의 동형과 이형 한자 표기를 제시한 것이다. 『世界國盡』에서 소개된 171개의 지명 가운데 사전에서 가타카나로 전환된 지명은 여기에서 제외하였다. 현재 한자 표기가 남아 있는 62개의 지명 가운데 동형으로 등재되어 있는 지명은 24개, 나머지 38개의 지명에서 이형으로 표기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네덜란드 「和蘭, 阿蘭陀」와 자바 「爪哇, 閩婆」에서 두 개의 표기를 인정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시아주와 유럽주에서 다른 주에 비해 동형의 한자로 표기된 지명이 많은데, 이는 明治 이전부터 일본에 알려진 지명들로 비교적 표기 역사가 오래된 지명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아프리카주는 <표 1>에서 모두 37개의 지명이 소개된 것에 비해 표기가 남아 있는 것이 3개의 지명에 불과하다. 이것은 아프리카주의 지명 대부분이 幕末·明治 초기 일본에 소개되어, 아시아주와 유럽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표기의 역사가 짧은 것을 이유로 들 수 있으며, 『世界國盡』에서 시도되었던 한자의 훈을 이용한 지명이 아프리카주에서 다용되었기 때문이다. <표 2>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현재 사전에 등재된 한자 표기는 모두 한자를 음으로 표기한 것이다. 즉 『世界國盡』에서 한자를 훈으로 표기한 지명은 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 훈을 이용한 지명은 한자의 어형을 제시하지 않으면 어떤 한자를 음으로 읽고, 어떤 한자를 훈으로 읽어야 하는지에 대해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사전에는 원음에 대한 일본어 발음 하나하나에 한자의 음과 훈을 혼용한 방식은 채택되지 않았으며, 고정된 한자의 음을 이용한 표기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世界國盡』의 지명 표기가 일본어 음절 하나하나에 들어맞고,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한자를 이용해서 당시의 비지식 계층을 겨냥하여 세계 지리를 알리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지만, 이후 지명 표기사에 있어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 나오며

본 연구에서는 福沢諭吉의 明治 초기 작품인 『世界國盡』에 소개된 외국지명의 한자 표기 실태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世界國盡』에서 이용된 외국지명의 한자 표기는 크게 『世界國盡』이전 문헌에서 보이는 표기와 『世界國盡』에서 조여된 표기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다. 『世界國盡』이전에 보이는 표기는 기존의 번역서에서 일반적으로 이용되던 표기이다. 福沢諭吉의 주관적인 표기이지만

일상적인 표기로서 明治 초기 사용되던 지명들이라 할 수 있다. 이들 지명은 한자 표기로서의 역사가 오래된 국가로, 중국식 표기에서 수용된 것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달리 『世界國盡』에서 조어된 지명들은 일본어 발음 하나하나에 한자를 대응시켜, 한자의 음과 훈을 자유롭게 조합한 형태로 실생활과 밀접한 한자를 이용하여, 세계의 지명을 소개하고 있다. 대부분 幕末·明治 초기 일본과 직접적인 교류를 통해서 알려진 이들 지명은 일본 고유의 표기 방식이 시도되어 세계 지명을 일부 계층뿐만 아니라 서민들에게까지 친숙하게 전달되도록 노력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世界國盡』에서 조어된 지명 표기는 이후 일본 사전에 등재된 것을 찾기는 어렵다. 그 이유로는 첫째, 한자의 음을 이용한 지명의 경우 일본어 발음에 따라 한자의 수가 많아져 필요 이상으로 지명이 길어지는 단점이 있다. 둘째, 하나의 지명에 한자의 음과 훈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은 한자를 읽는 방법에서 혼란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고유명사인 지명을 나타내는데 적합하지 않았다는 점에 있다. 따라서 고정된 한자의 음을 이용한 지명만이 사전에 등재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 『世界國盡』의 지명 표기 실태를 통해서 明治 초기의 표기 양상의 일단을 규명할 수 있었는데, 향후 보다 많은 문헌을 통해서 『世界國盡』이전의 표기 수용 과정을 통시적인 관점에서 진행해 나가고자 한다.

【參考文獻】

- 변상숙(2014) 「明治期の 外国地名 表記 研究 -『福沢諭吉』의 지리 관련 서적을 중심으로-」 동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李漢燮(1999) 「西遊見聞에 나타난 外國地名 및 人名의 漢字表記에 대하여 -日本式 表記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일본어학연구』 제1집, 한국일본어학회
- 鄭英淑(2000) 「開化期 資料에 나타난 外國地名의 漢字表記 研究」 中央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 荒川清秀(2000) 「外國地名의 意識-「牛津」「聖林」「桑港」-」 『文明』 21, 愛知大學國際コミュニケーション學會
- 上野力(1981) 「明治初期の外國地名表記」 『常葉學園短期大學紀要』 13, 常葉學園短期大學
- 鏡味明克(1989) 「地名의 漢字」 『漢字講座11 漢字と國語問題』 明治書院
- 国立國語研究所(1987) 「外來語の研究」 『国立國語研究所報告89 雜誌用語の変遷』 秀英出版
- 小林雅宏(1982) 「明治初期の翻譯書からみた外國地名の表記」 『專修大學文研論集』 8, 專修大學大学院
- 西浦秀之(1971) 「幕末・明治初期新聞にあらわれた外國地名呼稱・表記について」 『皇學館大學紀要』 9, 弘前大學
- 藤本光(1993) 「外國地名・地名の表記統一」 『言語生活』 266, 梵摩書房
- 山本彩加(2009) 「近代日本語における外國地名の漢字表記-明治・大正期の新聞を資料として-」 『千葉大學日本文化論叢』 10, 千葉大學文學部日本文化學會
- 王敏東(1995) 「外國地名漢字表記通時的的研究」 大阪大學博士學位論文
- 崔奉源(1999) 『세계지명표기사전』 성균관대학교

宛字外来語辞典編集委員会(1979)『宛字外来語辞典』柏書房
金田一春彦・林木・柴田武 編集責任(1995)『日本語百科大事典』大修館書店
坂本健一(1903)『外国地名人名辞典』寶文館
新村出(1969)『広辞苑』岩波書店
牧英夫(1990)『外国地名ルーツ辞典』創拓社
渡辺光等編(1973)『世界地名大事典』朝倉書店

논문투고일 : 2014년 09월 10일
심사개시일 : 2014년 09월 20일
1차 수정일 : 2014년 10월 08일
2차 수정일 : 2014년 10월 14일
게재확정일 : 2014년 10월 19일

<要旨>

『世界國盡』의 외국지명 표기에 대한 고찰

본 연구에서는 福沢諭吉의 明治 초기 작품인 『世界國盡』에 소개된 외국지명의 한자 표기 실태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世界國盡』에서 이용된 외국지명의 한자 표기는 크게 『世界國盡』 이전 문헌에서 보이는 표기와 『世界國盡』에서 조어된 표기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다. 『世界國盡』 이전에 보이는 표기는 기존의 번역서에서 일반적으로 이용되던 표기이다. 福沢諭吉의 주관적인 표기이지만 일상적인 표기로서 明治 초기 사용되던 지명들이라 할 수 있다. 이들 지명은 한자 표기로서의 역사가 오래된 국가로, 중국식 표기에서 수용된 것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달리 『世界國盡』에서 조어된 지명들은 일본어 발음 하나하나에 한자를 대응시켜, 한자의 음과 훈을 자유롭게 조합한 형태로 실생활과 밀접한 한자를 이용하여, 세계의 지명을 소개하고 있다. 대부분 幕末·明治 초기 일본과 직접적인 교류를 통해서 알려진 이들 지명은 일본 고유의 표기 방식이 시도되어 세계 지명을 일부 계층뿐만 아니라 서민들에게까지 친숙하게 전달되도록 노력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世界國盡』에서 조어된 지명 표기는 이후 일본 사전에 등재된 것을 찾기는 어렵다. 그 이유로는 첫째, 한자의 음을 이용한 지명의 경우 일본어 발음에 따라 한자의 수가 많아져 필요 이상으로 지명이 길어지는 단점에 있다. 둘째, 하나의 지명에 한자의 음과 훈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은 한자를 읽는 방법에서 혼란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고유명사인 지명을 나타내는데 적합하지 않았다는 점에 있다. 따라서 고정된 한자의 음을 이용한 지명만이 사전에 등재된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A study on the foreign place notation in 『Sekai Kunizukushi』

This paper gives an analysis of Kanji notation of the foreign country place names introduced in 『Sekai Kunizukushi』, one of Hukuzawa Yukichi's works. The results of it are as follows.

First of all, Kanji notations of the foreign country place names used in 『Sekai Kunizukushi』 can be bisected: notations before 『Sekai Kunizukushi』 and coined notations from 『Sekai Kunizukushi』. The former are general ones used in existing translations. They are place names as universal notations in early Meiji era although they are from Hukuzawa yukichi's standard. Chinese notations which have a long history as Kanji notations, take up a considerable part of these place names. Unlike this, the latter are that Kanji corresponds to each Japanese pronunciation, which is the formation to combine meaning and sound of Kanji freely. Using Kanji closely related to real life, the notations introduce world's place names. It shows his effort to try to make Japanese style notations and deliver foreign country place names familiarly to not only a part of class but also ordinary people. These notations are known to everyone through direct interact with westerners during Bakunatsu and early Meiji.

However, it is hard to find the notations made from 『Sekai Kunizukushi』 in Japanese dictionaries. There are two reasons. The first reason is that place names are lengthened more than needs. In case of using Kanji's sound, the number of Kanji can be increased according to the Japanese pronunciation. The second reason is that it gives trouble how to read kanji if a place name has both kanji's sound and meaning. So, it is unsuitable to express proper nouns, place names, by using the method. In conclusion, it can be supposed to register only place names using fixed kanji's sound in dictionaries.